

## 위계와 차별의 학교에서 페미니즘과 노동권 말하기

진행 : **건희** 상임활동가

대담 :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혜진** 교육공무직본부 사서 노동자, **영선** 연대하는교사잡것들 교사 노동자

학교는 오랜 기간 학생들을 효율적, 일률적으로 관리·통제해왔다. 차별과 위계에 기반한 성폭력의 현장이었고, 지금은 시라는 신기술과 만나 딥페이크 사태의 핵심 공간으로도 호명되고 있다. 동시에 학생, 사서 노동자, 교사 노동자, 급식 노동자, 청소 노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일터이자 생활공간으로 기능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학교를 현장으로 삼아 활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페미니즘과 노동권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었다.

### 조직적 성찰 과정의 부재 속 책임의 사법화

**건희** 학교가 딥페이크 사태의 핵심 현장이 되었죠. 상황에 대한 분노와 조직적 성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영선** 딥페이크 사건은 이미 산재한 여러 문제를 보여주었어요. 제가 일하는 학교에도 피해자가 있었어요. 피해가 알려졌을 때 사

건을 어떻게 다뤄야 하고,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 안내될 거라 생각했는데, 방송으로 법률 용어 한 번 안내한 게 대응의 전부였어요. 다른 학교의 경우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이라는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해 ‘문제를 일으킨 건 맞지만 너무나 처사’라는 등 동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학교는 아무 대응을 하지 못했죠. 학교는 가해 학생을 징계하는 것 말고는 문제 해결 방식이 없는 거 같아요.

**난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해요. 스쿨미투로부터 학교가 배운 게 하나도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온라인 공간에서조차 재학생은 말 못하고 졸업생 연대를 꾸려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학생이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구조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학교가 대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역할 해야 하고, 그러려면 학생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해요.

**영선** 공론화하지 않아 온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성희롱 문제가 발생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지는 이유에 대해, 소문의 형태가 아니라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식화되었어야 해요. 스쿨미투 이후에 저희도 교육받았는데, 왜 이런 교육을 받는지는 소문으로만 접했어요. 우리 지역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공식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공론화되고 쌓이는 과정이 있어야 해요.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지하는 위치에서 공론화하고 토론하는 것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을 이야기해야지, 쉬쉬하는 분위기에서는 배울 수 없는 거죠.

**혜진** 의무교육 받다 보면 고지식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아요. 교육 항목이 되게 많은데, 온라인이기도 하고 매년 똑같아요. 제가 일하는 경기도에서는 매년 의견을 받아요. 저는 왜 매년 똑같냐고 의견을 쓰죠. 반영은 전혀 안 되고요.

학교의 관리자는 교장, 교감이잖아요. 관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이 지금 하는 역할은 ‘방지’라고 생각해요. 예방을 위해 뭔가를 진행했다는 공문을 보내두고, 혹시 일이 터지면 ‘난 할 일을 다 했다.’라는 면피 용도로 활용하는 식이에요.

## 다양한 구성원의 일터인 학교, 위계와 차별을 넘어 다양하게 관계 맺을 권리를

**건희** 학교는 교사뿐 아니라 다양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인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성별분업이 뚜렷하고 위계적인 공간이기도 한데, 이에 관한 인지조차 잘 안되는 거 같기도 하고요.

**난다** 학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소수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다수가 피해를 본다는 식으로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는 인식이 보편화되는 거 같아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립감은 조직적 지원이 필요한 문제인데, ‘누가 떠벌려서 더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구도가 형성되는 거죠. 저년차 교사에게 많은 업무를 과다하게 맡기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도 드러나기 어렵게 되고요. 학생들도 학급이 올라갈수록 더욱 입시 위주로 돌아가니까 주변을 볼 겨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지만 미묘한 경쟁감이 조성되는 분위기 속에서, 여러 노동자가 있다는 인식 자체가 생기기 어렵죠.

**영선** 저는 학생과 다양하게 관계를 맺을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는 공부 공간이기도 하면서 생활공간이잖아요. 아무리 교육이 AI로 넘어간다고 해도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 오는 교육은 대체할 수 없죠. 관계를 맺으려면 안전해야 해요. 취약성을 갖더라도 차별하면 안 되고, 내가 공부를 잘 가르치거나 입시를 잘하는 교사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더라도, 자

유로운 토론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는 현재의 위계적 구조에서는 불가능하죠. 결국 교장의 결재로 모든 일이 이뤄지는 구조 아래서, 입시와 학교장이 허락한 권리는 수업권밖에 없는 거잖아요.

**혜진** 각자의 전문성을 펼칠 권리도 중요해요. 내가 학교장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관리자도 최종적으로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제가 졸업한 학과엔 여성이 많은데, 사서는 책을 나를 일이 많다는 명분으로 남성을 공공연히 선호하며 우선 채용하는 분위기가 여전해요. 여성 노동에 대한 저평가와 함께, 학교를 포함한 공공영역에서도 사서는 거의 다 비정규직이에요. 채용하지 않는 곳도 많고요. 안정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동료의 존재가 있어야 서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지금 교육청이 가장 줄이고 싶어 하는 게 과학실무사, 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인 것 같아요.

**영선** 일상적인 관계가 있으면 취약성을 드러내기 쉽겠죠. 하지만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통제적 분위기가 공고한 상황이 이를 방해하고 있어요. 학교 비정규직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동료 교사들도 많아요. 학교 내에 파트너십이 많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서로 벽치고 미루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건희** 학교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이러한 조건에서 젠더 평등을 이야기할 때,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요?

**난다** 학교는 졸업하면 끝인 공간, 다시 다

니고 싶지 않은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타자화하기도 쉬운 거 같아요. ‘요즘 애들이 더 그래서’ 등 쉽게 이질적 존재로 간주하는 함정은 경계해야 하겠고요. 트라우마로, 회피하고 싶은 공간으로 학교가 작동하면서, 입시나 경쟁이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각자 도생하라는 분위기가 더 강해져서 그런지 입시 폐지를 이야기하면 ‘열심히 고생한 애들은 뭐가 되냐’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혜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을 바꿔야 하고 학교를 바꿔야 하는데, 정말 어렵죠. 아직도 체육 시간에 남학생 한 줄, 여학생 한 줄로 이동해요. 여자는 피구, 남자는 축구를 시키고요. 그리고 ‘교사 대 교육공무직’의 구도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사서 교사’든 ‘사서’든 같은 사서 노동자의 영역으로 보는데, 학교 안에서나 사회적으로나 교사 노동자들이 공무직 노동자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사서가 논다고 생각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별준다고 도서관으로 보내기도 하고, 공무직에 대한 차별적 문장으로 구성된 글을 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공무직도 학생을 주체로 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2월 6일에 파업대회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 파업합니다’라는 문구가 제시되었어요. 우리는 학생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파업하는 건데 말이에요.



권혜진



난다



조영선

## 학교의 사법화를 넘어, 지금 바로 학생인권법!

**건희** 학생 인권을 제한하는 형태의 반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문제를 음성화시키고 심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학교가 달라지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혜진** 사서로 일하면서 본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피해가 올까 봐 무서워하는 거 같아요. 자기가 몇 학년 몇 반이라고 밝히지 않거나, 혹은 매우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둘 중 하나죠. 학부모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건, ‘학부모는 진상’, ‘진상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건 왜곡이라는 거예요. 과잉 대표되지 않게 학부모 단체들도 힘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영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학생인권법에서도 관련 구제 절차를 학교에 설치하려고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교사 개인을 공격할 명분도 없어지겠죠. 사법적 고소로 몰리기보다 행정 절차 안에서 기준을 갖고 논할 수 있어야 해요.

**난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이 인간답게 존중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매우 당연한 이야기예요.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학교가 명시하고, 개성 실천의 자유나 차별·폭언·성추행 금지 등 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관련 정책 수립을 교육부와 교육청의 의무로 명시하자는 게 핵심이죠.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지는 반동을 마주하면서, 물론 법으로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기준을 만드는 게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권에 관한 기준이나 논의가 부재한 결과가 처벌이나 고발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어린 시절부터 존엄한 삶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공공의 역할이라는 점에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알터**